

북한 문학의 전쟁과 행복*

-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권보드래**

〈차 례〉

- 해방과 소련, '행복하라'는 명령
- 한국전쟁과 심리전, '행복'의 남북 경쟁
- 소련의 2차 대전 경험과 북한의 한국전쟁
- 전후 복구와 천리마 시대의 '행복'
- '사회주의적 행복', 그 후 70년

[국문초록]

'행복'은 북한 사회의 이념적·도덕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치 중 하나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강요될 뿐 아니라 공유되는 '이상한 행복'의 기원을 1950년대로 소급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의 행복'과 '사회주의 건설 이후의 행복'이 갈등·공존하는 가운데 점차 전자가 우세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한국전쟁기의 남북한 뼈대를 비교하면서 '행복'의 관념과 정서가 선전전·심리전에서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1950년대 북한 문학에서 '행복'이 표제화된 소설(황건의 「행복」 등)과 소련 문학 번역작 중 '행복'을 표제로 삼은 소설(빠블렌코의 『행복』과 할렘스키의 「행복」)을 대상으로 하여 '행복'의 (재)의미화 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실·희생을 이념적으로 보상하고 서사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있어 제2차 대전 배경 소련의 소설·영화가 중요한 참조점이 됐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북한에서 '2차 대전=한국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의식'이 사회주의적 세계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논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의 행복'과 '사회주의 건설 이후의 행복'을 각각 부자 또는 형제 사이의 남성적 세대 갈등으로 서사화한 사례 및 '공적 행복'과 '사적 행복'을 젊은 부부 사이 젠더 갈등의 모티프로 서사화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1950년대에 북한에서 '행복'이 다양한 해석적 긴장 속에 있었음을 조명하고, 마지막으로 석윤기 소설을 통해 1960년대 초·

* 이 논문은 2024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반 한때 ‘행복’의 통합적 해석이 형성되는 듯했으나 뒤이은 체제 위기 속에서 그 성과가 계승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주제어] 행복, 변희근, 석윤기, 황건, 빠블렌코, 할렘스키, 선전전, 심리전, 사회주의적 행복, 『조소문화』, 한국전쟁, 제2차대전

1. 해방과 소련, ‘행복하라’는 명령

1945년 8월, 북위 38도를 경계로 한반도 남녘에 미군이, 북녘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첫 포고령의 내용이 판이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1980년대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해방전후사의 인식』(총 6권, 1979~89)에서 제기한 ‘점령군으로서의 미군과 해방기 남한의 타율성’, ‘친미반공주의에 의한 친일 청산 실패 및 이승만의 부상’이라는 논리가 갖는 설득력은, 독자로서 미·소의 첫 포고령을 비교해 읽을 때 겪게 되는 감정적 파문과 무관하지 않았다.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명의의 포고령 제1호가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문장을 핵심으로 한 데 반해 소련군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의 첫 번째 포고령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으니 말이다.

지금 읽어도 소련군의 포고령 제1호는 식민통치를 갓 벗어난 조선인에 대한 연대와 격려의 정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적 문서라기에는 부적절해 보일 정도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 위에 놓인 돌

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라거나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는 문장, 파괴된 공장과 기업체를 복구하라고 선전할 때도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쓴 문장을 살펴보면, 소련군의 포고령은 정치적이ragi보다 거의 시적으로 읽힌다.¹⁾ 맥아더와 치스차코프의 포고령이 미·소의 점령정책을 각각 상징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약이겠지만,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 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제3조)을 포함한 맥아더의 포고령(1945.9.9.)이 권위적·위압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이유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몇 주 앞서 발표된 소련군 포고령과의 대조로 인해 강화됐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터이다.

해방기 미·소 포고문의 대조라는 가볍지 않은 문제 중에서,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소련군 포고령 제1호에 거듭 사용된 ‘행복’이라는 단어다. ‘행복’은 사적인 가치·개념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이념적 함의가 크고 정치적 용법이 다양한 단어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할 때 메이지 왕의 이름으로 공포한 합병 선언서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쓰였다는 사실로도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채 안정되지 않아 낯설었을 텐데도 ‘한국병합에 대한 조약’은 “대소신민은(…) 일본제국 문명 신정(新政)을 복종하여 행복을 공수(共受)하라”는 명령을 내세웠던 것이다. 개인적 만족이나 쾌락을 금기시하고 오직 국가적 주체를 독려한 식민 말기에도(‘멸사봉공’·‘문장보국’) ‘행복’은 정치적 선전과 설득을 위해 즐겨 사용됐다.²⁾ 치스차코프의 포고령에 ‘행복’이 핵심적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은 ‘행복’의 그런 전사(前史)를 상기시킨다. 러시

1)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조선중앙연감』(1950)), 『북한연구자료집』 1,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9-21쪽.

2) 예컨대 식민말기 『매일신보』에서 ‘행복’이라는 표제어 기사의 출현은 빈번하다. 대표적 사례로 오키나와 출신 가미카제 지원병의 소회를 기사화한 「神鷲, ‘최상의 幸福者’: 향토 상공의 꽃으로 敵艦에 돌입」, 『매일신보』 1945.5.14.

아어 ‘счастье’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행복’은 포고령에 세 차례나 등장한다. 하긴 스탈린이 ‘행복의 건축가’로 선전되던 시기다.

소련군 포고령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희망·욕망·지향, 또는 작동 중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행복’과 ‘창조’와 ‘영웅심’을 강조했던 소련군 포고령에서 보이듯, 또 그런 호명에 부응해 형성돼 갔던 초기 북한 사회에서 보이듯, 중요한 지향점이었던 ‘행복’이 이후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작게나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산주의적 행복’의 원형이라 할 만한 ‘행복’이 잘 드러난 시기가 1950~60년대라고 보고, 그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전쟁기 및 전후 남북한 사상전의 연성적(軟性的) 측면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방 후 1967년까지 국한해 북한의 『조선문학』과 『조소문화』에 실린 창작 및 번역 소설을 중심으로 ‘행복’의 함의가 어떻게 구성·재구성되었는지를 살펴되, 당시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서 1980년대에는 4·15 문학창작단 단장 및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석윤기의 문장과 소설을 최종적 초점으로 삼는다. 『조선문학』 『조소문화』 외에 북한의 정치·행정 문서나 개인의 기록이나 회고, 그 밖에 북한 영화 등 또한 참조할 것이나, 문학 텍스트를 제외한 자료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기해 둔다. 이들 자료는 전체를 검토하거나 그 경중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험 안에서의 우연한 조우를 활용한 것일 뿐이지만, 그런 대로 접근의 실감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한국전쟁과 심리전, ‘행복’의 남북 경쟁

조선 인민에게 행복을 ‘명령’한 나라,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발송한 소비에트 러시아는 1917년 ‘노동국가’로 출발한 후 한반도에서 줄기차게 ‘낙원’으로 표상돼 온

국가였다. 3·1운동 이후 미국과 서유럽 중심 ‘개조’가 무력하고 위선적인 데 실망하고, 반면 카라한 선언으로 상징되는 반(反)제국주의 노선을 천명한 소련에 감명받은 많은 (준)식민 지역에서처럼, 조선에서도 소련은 노동의 존엄, 민족의 평등, 남녀의 동등권을 의미했다. ‘붉은 사랑’의 대중적 변조가 보여주듯 소련을 추문화하려는 흐름이 없지 않았으나, 그보다 세계 유일의 노동국가를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력했다. 수감기(收監記)의 몇 차례 게재에도 불구하고 게뻘우(ГПГУ, 국가정치보안부) 같은 억압적 기관조차 호의적으로 해석되곤 했으니 말이다. 미국이 물질주의·쾌락주의와 사적 행복의 영토로 표상된 데 비해 소련이 사상의 땅이자 창조·진보의 실험실로 표상됐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³⁾ 이효석이 「북국점경」에서 보여주었듯 노동의 규율과 성의 유쾌한 자유가 공존하는 나라, 백신애가 「꺼래이」에서 묘사했듯 거친 수난의 땅이되 근본적 인간미를 간직한 나라라는 것이 1920-30년대를 통해 점점 강화된 소련의 인상이었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공선』을 통해 알 수 있듯 그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중적으로 공유된 표상이었던 듯 보인다.⁴⁾

식민지시기를 통한 소련 지식이 대부분 간접적인 것이었던 반면, 해방기에 소련과의 접촉이 전면화되면서 소련에 대한 앎과 감정의 실감은 한결 구체화된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는 ‘조소친선’ 자체가 이념화·정치화되는 가운데 소련의 사회·사상·문화를 원본 그대로 경험·번역하려는 시도가 활발했다.⁵⁾ 여러 편 생산된 소련 기행문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하겠다. 해방기에 소련을 방문했던 작가·지식인들은 결코 맹목은 아니었으나, 즉 많은 문제를 탐지하고 기록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주의적 편향을 보였다.⁶⁾ 앞선 연구의 지적마따나 그것은 다분히 막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3세계

3)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호, 2008, 200-201쪽 및 210-214쪽 참조.

4) 중국에서의 소련 표상에 대해서는 정대화·장영, 「1930년대초 중국 지식계의 ‘소련열풍」, 『중국사연구』 58호, 2009 참조.

5) 임유경,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 해방기 북조선의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66호, 2009, 488-489쪽 및 492-493쪽.

6) 저자에 따라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예컨대 김일성을 수행했던 일종의 공식방문기록이었던 백

지식인들로서 피하기 어려웠던 재생·비약·주체화예의 욕망 때문이었다.⁷⁾ 한반도 북녘의 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새로운 존재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 소련이라는 모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장기적·추상적 목표였다면 소련은 당면한 실체로서, 주체를 고양·변화시키는 과업에서 결정적 매개 역할을 했다. 남한에서 출판된 이동규의 단편 「소춘」(『우리문학』 1946. 2)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소련에 대해 읽고(『소련 노동자의 생활』) 소련을 이상적 국가로 동경하는 설정을 통해 ‘욕망·이념의 매개로서의 소련’을 보여준다면,⁸⁾ 북에서 나온 이북명 중편 「로동일가」(『조선문학』 1947. 9)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건국실 겸 식당’의 정치적·경제적 선동 빼곡한 환경 속에서 “명량 유쾌한 휴식”을 누리고 “무한한 행복과 희망의 빛”을 드러내는 장면으로써 ‘소련 모델이 모방·실천되기 시작한’ 현실을 내비친다. 모방되고 실천되는 대상으로서의 소련’을 체감케 해 준다. 1920~30년대를 통해 전해졌던 ‘소련 노동자의 생활’과 이북명 소설 속 공장에서의 일상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상당수 북한 인민에 있어 한국전쟁은 갓 현실화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적 행복’을 위협한 사건이었을 터이다. 초기 북한 정권은 토지개혁(1946. 3)과 남녀평등권 보장(1946. 7) 등 급진적 개혁 조치를 기초로 광범한 인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소련·중국과 사전 협의된 남침을 북침으로 조작하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듯 보인다. 그럼에도 미군의 명목상 ‘군사시설 정밀폭격’이 실제로는 ‘무차별 폭격’화되고⁹⁾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쟁 상황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번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 위에 UN군의 압도적인 심리전 공세가 있었

남운의 『쏘련인상』에서 균열이 최소화돼 있는 데 비해, 민간사절로서 입국·검역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던 이태준의 『소련기행』에서는 배급 식사량 부족 → 훌륭한 영양 균형이라는 식으로 현실에의 의구심과 주관적 해석 전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남운, 방기중 해제, 『쏘련인상』, 선인, 2005; 이태준, 『쏘련기행』, 상허학회 편, 『이태준전집 6: 쏘련기행·중국기행 외』, 소명출판, 2015)

7) 표현은 다르나 비슷한 논지에 대해 임유경,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호, 2016 참조.

8)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3: 1945~1959』, 문학과지성사, 2016, 72쪽.

9)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호, 2010.

다. 한국전쟁은 약 5백만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인명이 희생된 전쟁이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의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이념적·심리적 차원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전쟁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개시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본격화된 근대적 선전전·심리전¹⁰⁾은 한국전쟁을 통해 훨씬 집중적으로 수행됐다. 극동사령부 심리전 분과 소속의 라디오방송·전단 제1국(1st Radio broadcasting & leaflet group) 및 미8군 사령부 정훈국(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에서 제작의 주축이 된 UN군 ‘중이 폭탄’은 한국전쟁을 통해 무려 25억장이 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한국전쟁기 UN군 뼈라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병사들의 굶주림·추위·죽음에의 공포를 자극하고 항복·귀순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인간을 이념적·사상적 존재라기보다 자극(S)-반응(R)의 종합체로 간주하는 행동과학적 시선이 투사된 방향이었다고 하겠다. 반면 북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전은 미군의 야수성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고발하는 종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두 종류는 남한과 북한에 의해 각각 독점적으로 사용되진 않았고, 서로 다른 이념적 목표를 위해 적대적 거울상처럼 활용되곤 했다. 미군이 ‘안전보장증명서’를 살포했다면 중국인민지원군도 ‘투항안전증’을 뿌렸고¹²⁾ 북한에서 “미국놈들의 총탄이 조선의 수많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공격했다면 남한에서는 “이 강산을 해골로 덮은 자는 만고역적 김일성이다.”라며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¹³⁾ 거울상 사이 경쟁은 때로 치열하고 때로 과점적 편향을 보인다. 남북한 정부가 미국과 소련의 ‘괴뢰’로 서로를 맹비난한 것이 전자의 사례라면, 남한-UN군이

10) ‘선전전’이라는 용어와 ‘심리전’이라는 용어는 흔히 혼용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와 조작 가능성을 전제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선전전’의 경우 이념적 존재로서의 인간 및 이념적 선전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중시하는 반면, ‘심리전’은 욕망과 충동의 존재로서의 인간 및 그들 요소에 의한 반응의 조작 가능성을 중시한다.

11) 북한에서 발행한 뼈라는 4억장 규모였다고 한다(이윤규, 「6·25 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호, 2010, 467쪽,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철수화영회, 2012쪽에서 재인용).

12) 전갑생·김용진·최윤원,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뼈라심리전』, 도서출판 뉴스타파, 2024, 268·310쪽 등.

13) 위의 책, 255쪽 및 202쪽.

‘생존’의 선전술을 과점한 반면 북한-중국인민지원군이 ‘야수적 학살’이라는 선동 전략을 과점한 것은 후자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저울추가 진동하는 중에 남북한은 평화·통일·독립 등의 가치를 독과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가족’과 ‘고향’이라는 사적 가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전쟁기 UN군 빼라에서 ‘향수’는 결코 작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¹⁴⁾ 그 스펙트럼은 어린 자녀를 동원해 “아빠는 어디 계세요?”를 묻는 종류에서 늙은 어머니를 내세워 “이애야, 이애야, 어서 돌아오너라.”며 호소하는 종류까지 다양하다. 때로 그 폭은 젊은 여성이 군대 간 애인을 그리며 “오—나의 사랑이여! 오—나의 변민이여!”라며 괴로워하는 도상이나, 남편을 시중드는 도회적 미모의 여성 옆에 “재미있는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도 김일성 때문이다.” “김일성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도 없다.”는 문구를 배치하는 도안에까지 이른다.¹⁵⁾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역시 유사한 시각적 이미지에 거의 동일한 문구를 활용했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와?”를 묻는 아이 그림에 “북조선에 집을 가진 리승만 부대 장병들이여! 빨리 집에 돌아와서 부모 처자와 즐겁게 지내라.”는 권유를 곁들이고, 찻먹이를 안은 채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는 여성의 서정적 자태에 “그대는 언제나 돌아오려나?”라는 문장을 박아둔 등의 빼라는, 도상만으로는 UN군의 북한군 대상 빼라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¹⁶⁾

한국전쟁기에 적을 향한 심리적 공격은 곧 아(我)를 향한 공격이 될 수 있었다. 인지와 사상을 일깨우는 내용이 아니라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터이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나 “그대는 언제나 돌아오려

14) 이입하, 앞의 책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표18: 극동사령부 빼라>의 북한군 대상 빼라 총 118종 중 10종, <표 20: 미8군 사령부 빼라>의 북한군 대상 빼라 총 185종 중 16종, <표 21: 미8군 사령부 중국군 대상 빼라> 총 191종 중 18종이 ‘향수 자극’ 내용에 해당한다. 각각 10%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1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빼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16) 빼라의 내용은 이입하, 전갑생·김용진·최윤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앞의 책 외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지원사업 ‘마음의 전쟁’팀이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후버아카이브에서 직접 수집해 온 자료를 활용해 재구성했다.

나?” 등은 아군 사이에서도 똑같은 동요를 불러올 수 있는 질문이었으며, 그만큼 신중히 통제되고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전유되어야 했다. 반공주의·자유주의보다 생존주의·가족주의가 강력했던 남한에 비해 이념적·사상적 인간형을 전제한 북한에서 이 문제는 좀더 복잡했으리라 짐작된다. 1945~50년을 통해 남한은 반공산·비공산의 이념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생존·번영·초월의 욕구를 수미일관하게 연결한 인간형을 조형하는 데 무능력했던 반면, 거꾸로 말하자면 ‘생존’ 자체의 가치화에 친화적일 수 있었던 반면, 북한은 ‘고상한 인간’·‘사회주의적 인간’을 이상화하면서 생존·번영·초월의 점증법적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즉 기성의 인간 존재의 초월·극복이라는 소실점과의 관련 속에서만 개인의 생존·번영을 지지함으로써, 후자의 자립적 실체화와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주의와 가족주의는 원초적 반응이었던 만큼 1950년대를 통해 북한은 그것을 길들이고 전유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행복’은 그 과정을 통해 뚜렷한 재조형 양상을 보인 개념이다.

1950년대 북한문학에서는 ‘행복’이라는 표제가 자주 눈에 띈다. 소설에 국한하자면 황건의 「행복」(1952), 변희근의 「행복한 사람들」(1953), 김북향의 「행복」(1957), 류근순의 「행복」(1960) 등이 그 사례다. 당연하게도 이때 ‘행복’은 한국전쟁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제기된다. 황건의 「행복」이 화선(火線)에서의 행복을 주제화한다면, 변희근·김북향·류근순의 소설¹⁷⁾은 전쟁기의 상실·손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난제를 다룬다. ‘행복’을 표제 삼은 첫 소설이었던 황건의 「행복」은 화선(火線)에 뛰어든 북한의 젊은 이들을 중심에 둔다. 후일 『현대문학조선전집』에 수록됐을 때의 해설을 참고하자면, 이 소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영웅 전사로 자라났는가,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17) 최초 발표 당시 저본을 찾지 못해 ‘현대조선문학전집’에 수록된 판본을 인용하고, 그 말미에 1952년 7월 2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집필 시기로 간주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는 황건의 「행복」이 1953년(발행월 불명) 『조선문학』에 게재된 것으로 정리돼 있으나 해당년도 잡지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주제의식으로 한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50년 여름,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진군했으나 UN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후퇴할 때까지의 시기다. 작가는 젊은 여성 레주를 서사의 초점에 두고, 그 주변에 정임과 정호와 인철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배치한다. 본래 교원이었던 레주는 UN군 폭격에 의해 어머니와 동생 셋을 모두 잃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선배 정임의 권고에 따라 간호부로 전선에 자원하지만, 가족을 상실한 슬픔은 격렬한 전투와 무거운 노동 속에서도 가시지 않는다. 이런 레주를 보며 정임은 ‘증오와 전투에의 의욕’을 촉구한다. “원썩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해요. 레주는 왜 원썩을 미워할 줄 몰라?”¹⁸⁾ 라는 것이 정임이 제출하는 문제 제기의 골자다.

정임의 말대로 북한에는 고통과 상실을 원함과 전투 의욕으로 전환시키는 선전이 한창이다. 거리마다 ‘의용군으로!’ 자원할 것을 선동하는 선전화가 붙어 있고, “김을 매다 호미를 켜 채 놈들의 비행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의 젖을 쥐고 어린아이가 우는 선전화에는 ‘원썩을 갚아다오!’라고 씌어 있다.”(146).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의 젖을 쥐고 어린아이가 우는 선전화”란 지금까지 전해지는 해당 도상의 북한 뼈라·포스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이런 선전이 전파하는 것은 애도를 사적 감정으로 소모하는 데 대한 경계, 그리고 애도를 국가적 전투 의욕으로 전환시킬 필요에 대한 요청이다. 정임의 설득에 의해 애도의 수동성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하게 된 레주는,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그 물리적 존재의 절멸을 매 순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레주의 심리와 감정을 실질적으로 바꿔 놓는 인물이 그가 근무하는 병동에 부상병으로 입원한 김정호다. 정호는 전선에서 부상당해 후송된 처지이면서도 한시바빠 전투에 복귀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전투가 불가능한 후방 병원에서 그는 계몽과 선동의 역할, 일종의 교사요 상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에 복무한다.

18) 황건, 『행복』, 『현대조선문학선집 77: 싸우는 마을사람들』, 문학예술출판사, 2018, 145쪽.

레주와 정임, 그리고 정호가 전쟁을 통해 변화하고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종의 즉석 독서 토론을 벌이는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레주와 정임은 격무 중에도 일과 후에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 그 위에 정호까지 합세해 벌이는 독서 토론의 대상은 파제예프의 『청년근위대』다. 『청년근위대』는 1946년 스탈린상을 수상한 제2차 대전기 소련 ‘조국수호문학’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북한에서 그 인기는 꽤 높았던 것 같다. 파제예프가 1946~1956년 소련작가동맹 위원장을 맡은 거물이었음에도 『청년근위대』는 한때 ‘비당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지만¹⁹⁾ 황건의 「행복」에 그런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황건의 젊은이들은 아직 다 번역되지도 않은 『청년근위대』에 대해 감격된 흥분을 토로할 뿐이다. 물론 그것은, 이 소설이 영화화(1949)되어 한국전쟁 직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는 사정과 직결돼 있다. 정임은 번역된 『청년근위대』 제1부를 완독한 반면 레주는 그 일부를 읽었을 뿐이고 정호는 소설 자체는 읽지 못했지만, 이들은 모두 영화 <청년근위대>를 관람한 경험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점령기 독일군에 대항해 저항운동을 조직했다가 남김없이 체포당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장면을 토의한다.

토의의 핵심은 정임이 제기한 질문, “어떻게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것처럼 명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 특히 “그 청년들은 죽을 적에 슬펐을까 기뻐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호는 “혁명 이후의 소련의 환경이 아니면 그런 성격들은 못 나왔을 것”이라면서 최후의 순간에도 주인공들은 “소설에는 어떻게 묘사했는지 모르지만 기뻐할” 것이라는 단호한 답변을 제출한다(157). 이 대화는 곧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북한 젊은이들의 최후를 예표한다. 그러나 『청년근위대』와 같은 ‘투쟁 속의 헌신과 죽음’을 실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레주처럼 미숙한 인물의 성장과 더불어, 이미 완성됐던 인민-전사로서 전쟁기에 이탈한 존재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19) 당적 지도가 명백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비판의 핵심이었다. 파제예프는 제2차 대전기 독일 점령 하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자생적 투쟁을 ‘당적 지도’에 의한 것으로 전면 개작함으로써 비판에 응답한다. 그런 응답 또는 타협의 결과가 『청년근위대』의 스탈린상 수상이었다.

수 있을지의 문제다. 이 문제를 위해 설정된 인물이 정임의 남편 인철이다. 인철은 전쟁 전 빨치산으로 입대했다가 부대가 궤멸되는 과정에서 남한 경찰에 의해 체포, 고문에 못 이겨 변심한 후 빨치산 근거지로 경찰을 안내하는 등 변절자로서의 적극적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다. 비록 내면에서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비판과 사면과 재무장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정임은 몇 년 만에 남편을 만났으면서도 혹독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인철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정임은 “그때에 왜 자살을 못했어요?”(163)라며 가차 없는 반응을 보인다. 동시에 인철이 뒤늦게 자살을 결심했다는 데 대해서는 독특한 논리로 자살을 만류한다. “당신이 지은 죄를 당신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써다. “죽음이 어떻게 죄값을 대신해요? 그렇게 무책임하구 비렬한 일은 없어요.”(166). 아내로서 느낄 법한 감정적 동요가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레주가 발화하는바 언뜻 일관성 없는 첫순간의 ‘자살에의 권유’와 이후 ‘자살의 금지’는 같은 행위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빨치산으로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할 때 자살이 투쟁의 방법일 수 있었던 반면, 변절자가 돼 버린 후의 자살은 회피요 무책임일 뿐이다. 즉, 주체의 판단과 행위의 권리는 그것이 당과 일치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생명과 주체의 권리는 당에 전적으로 의탁되어야 한다. 이 기묘한 주체 부정의 논리는 곧 스탈린 시기 소련에서 발달한 ‘(자기)비판’이라는 통치 기술과 통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서 광범하게 채용된 이 기술은 북한에서도 널리 영향을 미쳐, 한국전쟁기 북한에서 노획된 문서군(RG-242) 중 주체 (재)형성을 위해 강요된 ‘(자아)비판’의 통치술을 증명하는 종류만도 수백 종에 이른다.²⁰⁾ 그것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나 최인훈의 『서유기』, 『화두』 같은 문학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같은 ‘비판’의 핵심은 복종(subject)에 의해 주체(subject)가 탄생

20) Suzy Kim, 윤철기 · 안중철 옮김, 『혁명과 일상: 해방 후 북조선, 1945~50년』, 후마니타스, 2023, 제5장 참조. Suzy Kim의 저서는 영문으로는 2013년에 발간됐다.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자서전과 이력서로 본 북한의 해방과 혁명, 1945~1950』, 푸른역사, 2020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다는 메커니즘의 문자 그대로의 실현이다.

황건의 「행복」은 정호의 부상과 인철의 변절과 레주의 상실이 모두 당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재)각오로 승화되는 과정을 다룬다. 정호는 회복 후 최전선으로 복귀하고, 인철은 당에 과오를 고백한 후 빨치산으로 재배치된다. 가장 극적인 것은 주인공 격이었던 레주의 경우다. 평범한 젊은 교사였던 레주는, 정호와 사랑을 확인하면서 생의 의욕을 되찾지만, 정호를 전선으로 떠나보낸 후 또 슬픔에 잠긴다. 이때도 계몽을 담당하는 것은 선배 정임이다. 정임은 “우리에게 슬퍼할 권리는 없”다며 “필요할 때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타인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주체의 죽음’에의 결의로 바뀌어 버리는 가운데, 즉 불가항력의 부조리가 자발적 결정으로 치환되는 가운데, ‘개인의 생명보다 당·국가의 존속이 우선’이라는 명제는 좀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그리고 레주는 그 명제를 증명하듯 적에 쫓겨 아군의 후퇴가 좌절될 찰나에 폭탄을 안고 적의 탱크에 돌진해 추격을 저지하고 숨을 거둔다. 그의 최후의 말은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역설적 ‘행복’을 증언한다. “나를 불행타 하구… 생각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언니는 몰라요. 어서 가주세요. 나 때문에… 길을 지체하지는 마세요.”(191)²¹⁾

3. 소련의 2차 대전 경험과 북한의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은 각각 미·소 연합과 미·소 대립을 핵심적 계기로 하는 전쟁으로서, 성격과 의미가 판이한 사건이다. 1950년대 남한에서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상상적으로 동일시하고 중첩시킴으로써 일종의 세계사적 의식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앞선 연구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지만²²⁾ 북한에서는 어떠했을까? 남한에서의 전쟁 의식이 ‘부조리’

21) 북한문학의 정전인 황건의 「불타는 섬」에서의 주인공들의 최후가 「행복」의 레주의 최후와 닮은꼴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둘 직하다. 황건은 한국전쟁기 웅진·서울·대구 등지에서 중군하며 수집한 실화가 「불타는 섬」의 출발이 되었음을 회상한 바 있는데(황건, 「전쟁의 나날을 더듬어」, 『조선문학』 1979. 4.), 그 점을 참작하면 「행복」 또한 모델 소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와 ‘무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북한에서의 전쟁 담론은 ‘혁명’과 ‘투쟁’을 중핵적 화소(話素)로 한다. 남한의 작가·지식인들이 ‘반파시즘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로 이념화된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의 사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살상·파괴 끝에 분출될 수밖에 없었던 (특히 프랑스 원산의) 실존적 모순의식에 주목했다면, 북한 문학예술인들은 ‘반파시즘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미·소 연합의 근거를 사회주의의 정당화 논거와 결합시킨 소련의 제2차 대전론에서 한국전쟁의 정당화 논거를 발견했다. 1990년대 이후 냉전 아카이브의 세계적 개방 이후 확인됐듯 한국전쟁은 소련·중국과 사전 협의된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개시된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선전 중인 북한에 있어, 민주주의-혁명-사회주의를 계열화하면서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은 체제 존립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한 과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경험 및 그 정당화 담론은 중요한 참조점이었다.

한국전쟁기 개인의 희생과 상실을 의미화하는 데 있어서도 소련의 영향은 컸다.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진바 ‘소련=행복한 인민의 나라’라는 선전은 여전히 중요했으나,²³⁾ 다른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소련의 ‘행복’은 투쟁을 향해 전회한다. 앞에서 황건의 「행복」이 과제예프의 『청년근위대』를 모델화한 사례를 들었지만, 한국전쟁 속의 갑남을녀가 소련 인민의 제2차 대전 경험을 겹쳐 떠올리는 일은 자못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대표적 ‘여성 빨치산 영웅’ 조옥희의 생애를 소설화할 때도 소련의 존재는 매번 환기됐으며²⁴⁾ 특히 이북명은 중편소설 「조선의 딸」에서 제2차 대전 중 처형당한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를 조옥희의 모델로서 재생시킨 바 있다. 그의 소설에서 조옥희는 “소련 여성들의 행복스러운 생활과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

22)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68~69쪽.

23) 북한은 그 상상력을 활용하여 한국전쟁기에도 점령 지역에서 소련 관련 사진전 등을 부지런히 개최한 바 있다(조은정, 「한국전쟁기 선전선동사업과 문화공작대: ‘적치 90일’의 선전선동사업과 문화공작대 활동」,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 역락, 2018, 137-138쪽).

24)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0호, 2016, 489-490쪽.

서의 그들의 투쟁을 서술한 서적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며 “우리나라를 침습하는 원쑤가 있다면 나는 조-야처럼 용감히 해낼까?”²⁵⁾ 자문하는 인물,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쏘베-트 조국의 딸과 자기의 마지막 걸음이 흡사한 데 대해서 어떤 기적과 인연을”²⁶⁾ 느끼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최후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장식되고 있지만, 어린 아들과 노부모를 그리며 “상봉아! 부디 잘 커라”,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되뇌는 그를 지탱해 주는 궂대는 소련의 젊은 여성 빨치산의 생애인 것이다.

해방기에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택한 이들에게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1945.8~1953.6)가 공적 목표와 사적 성취가 비교적 조화로운 시기였다면, ‘조국해방전쟁 시기’(1950.6~1953.7)는 전자가 후자를 압도한 시기였다. 북한이 승세였던 전쟁 초기에도 ‘인민군 예술극장’은 서울에서 <제2전선의 배후>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 등 제2차 대전 배경 소련 희곡을 상연했으며²⁷⁾ 전황이 복잡해지면서 소련발 ‘조국수호전쟁’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행복’이 취소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그 진정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라는 설득의 담론 또한 나란히 자라난다. 한국전쟁 종전기에 『행복』이라는 표제로 번역된 빠블렌코의 장편소설을 대표적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소설은 1948년에 처음 개요가 소개된 후²⁸⁾ 1953년 백석에 의해 번역된다. 지금까지의 자료 조사로는 제1부만 번역(3만부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²⁹⁾ 『행복』의 주인공은 제2차 대전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다리를 잃은 후 퇴역한 위로빠예프 대좌다.³⁰⁾ 그는 7세 아

25) 리복명, 「조선의 딸」 1, 『문학예술』 1952.10, 21쪽.

26) 리복명, 「조선의 딸」 3, 『문학예술』 1952.12, 83쪽.

27) 조은정, 앞의 글, 123쪽.

28) 니콜라이 주다노브(이일섭 옮김), 「우리의 시대를 그린 책: 빠블렌코의 『행복』, 『조소문화』 3권 4호, 1948.8.

29) 한상연영화연구소 한상연 소장님의 후의로 빠블렌코의 『행복』 전문을 촬영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한상연영화연구소 외 국내에 『행복』의 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립도서관 중에는 2개소에서 소장이 확인된다(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편, 『(러시아 국립도서관) 북한자료 종합목록: 러시아국립도서관(RSL) · 러시아국립도서관(NLR) · 외국문학도서관(LFL) 소장』, 2024, 300쪽).

30) 백석이 번역한 소설에서는 위로빠옴, 꼬릴롭 등으로 인명을 표기하고 있으나 1948년의 소개 기사에서는 위로빠예프, 꼬릴로프 등의 표기를 채용했다. 이 글에서는 후자로 통일해 적는다.

들을 모스크바에 홀로 남겨둔 채 크림반도로 떠나와 전쟁으로 반파(半破)되고 “질서라고는 하나도 없고 규율이라고는 하나도 없”게끔 와해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헌신한다.³¹⁾ 지구위원회 비서 꼬릴로프나 그의 조력자 레나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서다. 위로빠예프의 눈에 꼬릴로프는, 지역과 인민을 사랑하지만 “지도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인연이 먼”, “만약에 그가 관현악 합중주단의 지휘자라면 그는 음악가들을 지도하여 가는 대신에 정녕코 이 악기에서 저 악기로 갈아대며 번차례로 그것들을 불고 켜고 할 것”인 인물로 비친다(245). 반면 꼬릴로프는 위로빠예프를 여섯 개의 무공훈장을 자부할 뿐 조직 운동에는 무지한 인물로 간주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위로빠예프에게 “당신이 무슨 공산주의자요! 당신은 그저 명령만 내리고 조그만 책자만 썼으면 좋겠으니!”라고 비난을 퍼부을 정도다(58).

『행복』의 저자 뽀뜨르 빠블렌코(Пётр Павленко, 1899-1951)는 1940~50년대 한때 소련의 대표적 작가이자 당의 헌신적 선동가, 공산주의 건설의 적극적 활동가로 평가됐던 인물이다. 1920년대에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 ‘산고개(Перевал)’ 과의 일원으로 거명됐으며, 초기에는 주로 동방 관련 관심을 문장화하다가 제2차 대전 후 ‘조국수호전쟁’ 및 전후 건설 과정을 소재로 한 대규모 장편소설로 명성을 얻었다. 세 차례나 문학 부문 스탈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³²⁾ 북한 국립출판사에서 출간된 『행복』은 1947년 스탈린상을 수상한 『행복을 향해(К счастью)』의 번역이다. 빠블렌코에 대해서는, 동료 작가 오십 만젤쉬밌이 체포·처형당할 당시 소문이 증명하듯 권력지향적 비열한에 불과했다는 평판도 있지만, 『행복』은 단순한 선전 소설이라기에는 산포시키는 사실이 생생하고 구현해 내는 갈등의 긴장도가 만만치 않다. 첫머리 위로빠예프와 꼬릴로프 사이 논전이 보여주듯, 이념상 ‘반

31) 뽀 빠블렌코, 백석 옮김, 『행복』, 국립출판사, 1953, 28쪽.

32) 작가에 대한 기본 정보는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Pyotr_Pavlenko), Soviet.net(<https://www.sovlit.net/bios/pavlenko.html>), Free Dictionary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The Great Soviet Encyclopedia(1979) 해당 항목에 의지했다. 레프 레빈의 연구서(Л.А. Павленко,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56) 소개도 참조했다(<https://www.livelib.ru/book/1001383635/bookswap-p-a-pavlenko-lev-levin>).

동'이 거의 없음에도 — 위로빠예프가 살게 된 집의 본래 주인을 비롯해 '반동'에 준하는 이들은 한때 지역을 점령했던 '독일놈'들과 달아난 후다(62) — 전후 소련 사회를 살아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욕망과 생활방식은 서로 어긋난다. 레나 어머니처럼 집을 꾸미고 사유화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감한 전투원 출신이지만 환자들에게 관대하게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규율을 흐리는 의사도 있고, 독일군의 성적 노리개로 지내다 귀향하여 재출발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이 있는 한편, 가족을 다 잃고 낯선 땅으로 이주했으나 노년의 지혜와 용력(勇力)을 아낌없이 나눠 주는 노인도 있다.

『행복』에서 전쟁 전 소련 사회는 일종의 낙원으로 회상되며 최전선의 전투는 충만하고 고양된 생의 경험으로 해석된다. 전쟁 중에도 파괴되지 않은 집단농장 '승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을 보여준다면, 한창 유럽으로 진군 중인 부대에서 들려오는 전투 소식은 부상·전역 군인들에게 '좋았던 한때'를 기억해 내게끔 자극한다. 『행복』은 사건-회고의 플래시백 효과를 빈번히 사용하는데, 그 효과가 집중되는 대상은 '전쟁에서의 행복'이다. 전쟁 영웅 위로빠예프의 경우 다리를 잃어 제대하게 된 것을 두고 "나는 비행기에서 굴러나오듯 행복으로부터 굴러나왔"다고 할 정도다. 그는 탄식한다. "모든 것은 그곳에 남아 있지요— 영예, 동무들… 모든 것이(…)"(93). 각각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옛 병사들 역시 전선을 회상할 때 "얼굴에 행복스러운 빛"을 띤다.³³⁾ 노동의 규율이 무너진 집단농장을 일으키는 데 위로빠예프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그가 전쟁의 수사학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원 경작을 두고 "누가 맨 첫 번인가?... 전투로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는 복을 만날 사람이야!..."(122)라고 말하는

33) 북한 소설에서도 전장에서의 체험을 '행복'으로 회상하는 선율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예컨대 김복향의 『행복』에서 주인공은 전쟁 발발 후 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한 후 "모든 문제가 단번에 제기되고 그리고 해결되"는 해방감을 느낀다. "갈림길이라곤 없는 밝고 탄탄한 외줄기 대로로 달리기만 했었다(…) 얼마나 행복한 운명의 나날이었으랴"(71). 모진 전투로 점철된 나날을 '행복한 운명의 나날'로 회상하는 것, 동요나 회의 없는 충만감의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은 예컨대 제1차 대전 직후 유럽의 청년층에서, 또 제2차 대전 중 파시즘 국가에서도 목격되는 망탈리테지만, 제2차 대전 후 미국·서유럽 중심으로 전쟁=살육·참극이라는 등식이 일반화된 반면 사회주의에서의 지속성은 보다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으로 ‘돌격’의 정신을 격려하고, 이에 호응해 제대군인들은 “마치 진정한 공격을 앞둔 때나 같이 공중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고 그리고 모든 생명있는 것들이 공연히 부산들을 피우고 그리고 어느덧 더할 수 없이 흥분된 소리들로 — “삽들!… 신을 내서!… 불!… 제일 돌격대는 어디 있나?” — 하고”(113) 분기한다.

중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남편을 걱정해 일행을 만류하는 아낙네들이 있지만, 한번 불붙은 제대군인들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밤중에 햇빛을 들고 포도원 밭을 갈러 출동할 정도다. 이것은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과 기아에 시달리다 제2차 대전기 ‘조국수호’ 대열에서 기이한 행복감을 맛보았다는 소련 인민들의 사회적 초상이자, 눈앞의 생존과 승리를 위해 투쟁할 때 존재의 고양, 즉 일부 병사들이 전선에서 맛보게 된다는 전쟁 황홀경(war ecstasy)의 정치적 활용이다. 꼬릴로프는 위로빠예프가 ‘조직’이 아니라 ‘시’에 의지한다고, 그러니 열정의 전염에 매달리지 말고 “좀 건전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하지만, 『행복』 제1부를 통해 꼬릴로프의 의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위로빠예프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요양 생활에 들어갔는데도 점점 지역의 중심인물로 떠올라, 남녀노소가릴 것 없이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 자리잡는다. 그는 때때로 모스크바에 홀로 남겨둔 7세 아들을 생각하며 “가정! 아, 이것은 얼마나 인간생활에서 소중한 것인가!”라고 되뇌고, 전쟁 전 번영을 잊고 있는 ‘승리’ 농장을 보며 “글쎄 행복이 이렇게도 가까이 있었고, 이렇게도 누릴 수 있었고…”라며 아쉬워하면서도(101) 결국 ‘전장에서의 행복’의 대체제인 투쟁적 건설의 열기를 선택한다. “선두에서 지휘하던 그 공격에서 얻을 수 있었던 흥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행복된 것”(145)이기 때문이다.

빠블렌코의 『행복』 제1부는 미국인 해리스와 위로빠예프의 기나긴 논전을 보여주면서 끝난다. 소설의 배경은 1941년 소련과 미국이 잇따라 연합국에 합류하고 1942년 ‘연합국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소련군의 루마니아 진격 삽화를 생각하면 대략 1944년 초로 생각되는데, 미·소 연합의 효과인듯 소설에서도 중반 이후 미국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역 역할로 미국

인들을 만나게 된 위로빠예프는 ‘미국=민주주의 국가’라는 평판을 독점화하려는 해리스(“제발 당신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일랑 마시오.(…) 가장 좋은 민주주의란 우리 손안에 독점하고 있으니깐요.(…) 미국 것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는 게요”(312))에 맞서 소련의 가치를 옹호하고, 대독(對獨) 전쟁에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위대한 미래를 위해 진군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쓴다. 이때 위로빠예프가 해리스를 위해 안내하는 참관 대상 중 하나가 전쟁고아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다.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씩씩하게 희망을 품고 있다. 팔다리를 모두 잃고 몸통만 남아 ‘원반(圓盤)’이라 불리는 소년까지 입에 연필을 물고 글을 쓰는가 하면, 장애 입은 신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쾌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 아이들을 낙오시키지 않았다는 자부심에 벅차, 위로빠예프와 그 동료들은 “이제 이들이 자라 성인이 될 것이오!(…) 영웅들이 될 사람들이 오!”(277)라고 외치는가 하면, “우리네 세대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것인가”(281)라는 감동에 젖기도 한다.³⁴⁾

1950년대에 번역된 소련의 ‘행복’이 전쟁·투쟁이라는 화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당시 『조쏘친선』 『조쏘문화』를 통해 선전된 소련의 모습은 식민지시기·해방기에 수용된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민의 나라’를 주조음으로 한다. 소련 기행문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는 사람들」(김정배, 1956.7), 「행복의 나라 이야기」(리원우, 1957.11)나 소련 인민의 생활 감정을 번역한 「행복한 인민들의 새 나라」(샤루-루 빌드락, 1949.2-4), 「로농의 행복」(웨. 하다예브, 1958.4), 그리고 어린이·여성 같은 소수자적 존재에의 배려를 강조한 일련의 기사(「쏘련 아동들의 행복한 생활」(1953.6), 「행복한 쏘련의 어머니들과 어린이들」(1954.3)) 등이 여기 속한다. 크게 보자면 ‘소련 인민 생활’

34) 빠블렌코의 『행복』 제2부는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문 번역을 참조하면 2부 마지막에서 위로빠예프는 전장에서 사랑을 확인했던 여의사와 재회하여, 공적 행복을 이룬 데 이어 사적 행복의 가능성까지 확인하게 된다.

· ‘위대한 나라 소련에서’라는 고정란에 게재된 글 대부분이 이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빠블렌코의 『행복』 외 소련 문학 번역작 중 ‘행복’이라는 표제로 발견되는 느 할렘스끼의 『행복』(리상갑 옮김, 『조소문화』 1956. 5)³⁵⁾도 그렇다. 소설로도 오체르크로도 보이는 이 글은 1917년 혁명 전후를 초점으로 ‘행복’의 변화를 고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금지와 행복’을 설파한다.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글의 외화(外話)는 3대째 노동자인 ‘나’가 어느 날 산책길에서 엿듣게 된 젊은 남녀 사이 대화다. 처녀가 공장 노동을 권하는 데 대해 이고리라는 이름의 청년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에 대해 처녀가 “당신 생각엔 행복은 무위도식하는 데 있지요. (...) 백발이 될 때까지 기생층 생활을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단 말이지요?”(49)라고 공박하는 것이 대화의 요체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이고리의 태도에 분격하지만, 직접 대화에 개입하여 그를 계몽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신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거기 접근하는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혹자는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선물처럼” 그것을 얻으려 하지만 인간은 “자기 행복의 단야공”이어야 한다는 것, 즉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복의 주인이라는 데서 인간 된 가치가 발현된다는 생각을 내화(內話)의 사연으로써 풀어낸다. 외화와 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의미 심장하게도 혁명의 발원지였던 오데싸다.

‘나’, 즉 쉘니까 그라브첸코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증거로서 부친 대의 고난·투쟁 속의 인간성, 그리고 그 자신과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 속의 보람을 대비시켜 서사화한다. 1905년 혁명 당시 “까자크들이 동맹 파업자들을 쏘 사격 신호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는 소금 가게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56)에 살았던, 그러니까 ‘오데싸의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던 부친은 노동자들 사이 연대와 공동의 대의에의 헌신을 평생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는 연료난에 시달릴 때 집에 남은 마지막 석탄을 그러모아 공장으로 갖고 갔으며, 표류 직전의 배를 구해 내고

35) 원저자와 텍스트를 확정하지 못했다. 제2차 대전기부터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나움 아라모비치 할렘스끼(Наум Абрамович Халемский)가 1956년에 발간한 오체르크 모음집 『행복이란 무엇인가(Что такое счастье: Очерки)』에 실린 동명의 오체르크가 저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좀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는 그 무리한 모험 때문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1917년 혁명으로 새 세상을 맞보긴 했지만 결코 순탄했다 말하기 어려운 생애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일생이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되는 것은, 아버지가 슬픔도 기쁨도 공장 및 동료 노동자들과의 온전한 일체화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식인 5형제는 혁명 후 소비에트에서 살면서 시인이자 화가이자 발명가이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일체화된 삶을 산다. 휴일이면 다 함께 모여 마야코프스끼의 시를 읽고 현악 5중주를 연주하며 그림을 그려 이웃에 선물하는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다. 이런 내화로써 ‘나’는 세상의 이고리들을 향해 노동과 건설의 가치를 설득한다. 다음과 같은 아포리즘적 문장을 통해서다. “삶은— 범죄적인 나태인 것이 아니라 활동이다. 무위도식은 가장 망칙한 패덕과 종치를 사람의 마음에 산생시키지만 그러나 로동은 위훈을 낳는다”(59~60). “이고리를 찾아내어 그를 우리 일행에 끼어들게 할 수 있었다라면! 아마 그는, 예전처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로동하고, 건설하고, 웃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휴식하도록 용감하게 부르는 그런 참된 생활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65).

할렘스끼의 ‘행복’은 건설기 소련에서 제기된 문제, 즉 혁명보다 지난한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응답이다. 이 소설-오체르크는 제1세대의 삶과 제2세대의 삶을 대비시킨다. 제1세대인 아버지—소극적 인물인 어머니는 거의 조명되지 않는다—가 고난 속에서 노동의 윤리와 투쟁의 정신을 지키며 살았다면, 제2세대인 아들 5형제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보람된 노동과 공동체적 여가를 누린다. 그 차이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을 때 그 효과가 1세대와 2세대에서 판이하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장남이 주형 기계를 발명했을 때 아버지는 그 결과로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며 격분했지만, 혁명 이후 사회에서는 형제들이 새로운 기구 제작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신중성 때문에 발명의 모험을 지체시키는 판단—그 주체는 여성 엔지니어다—이 공격받을 정도다. 혁명 이전에 발명이나 생산성 향상이 개인적 영달에 이바지할 뿐이었다면, 혁명 이후 그것은 개인과 전체의 조

화 속에서 절대적 선으로 자리매김된다. 사회주의 사회를 맞아 “행복은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꺼워하며 자유로이 호흡하도록 하는 데 있”(55)다는 윤리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과도기인 사회주의를 지나 이미 공산주의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이 물씬한 이 세계, 개인적 존재가 사회(주의)적 존재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세계는,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거의 추구되지 않는다. 빠블렌코의 『행복』이나, 또 황건·변희근·김북향의 ‘행복’ 표제작 소설이 보여주듯 전쟁·전투·투쟁의 상상력과 결부된 ‘행복’이 확고하게 주류화되기 때문이다.

4. 전후 복구와 천리마 시대의 ‘행복’

제2장에서 살폈던 황건의 「행복」은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그 가계가 말살됐다는 사실에 무관심하다. 주인공 레주의 또 다른 자아이자 계승자인 양 17세 소년병의 존재를 설정하긴 했지만, 그는 서사의 후반부 내내 사실상 방치돼 있다. 레주의 죽음 이후에야 잠깐 모습을 드러낸다. 개인과 가족의 수준에서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회피해 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상실 또는 손상은 중대한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거의 모든 인구가 가족·연인·벗의 상실을 겪게 했으며, ‘상이군인’(남) 또는 ‘영예군인’(북)을 중심으로 손상당한 무수한 신체를 낳았다. 청년-남성-전사인 ‘상이군인’ 또는 ‘영예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의 구축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³⁶⁾ 문학 또한 이 ‘상실’ 또는 ‘손상’의 상황에 광범위하게 대응했다. 한국전쟁 종전을 즈음해서부터 발표된 변희근의 「행복한 사람들」, 김북향의 「행복」, 류근순의 「행복」

36) 남한의 경우 1950년 4월 ‘군사원호법’을 제정했지만, 전후 국가의 경제적 곤란으로 각도에 상이군인요양원을 설치하고 일부 부문에 상이군인 우선 채용을 실시하는 외 체계적인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군사원호청이 실시되고 원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정책이 체계화된 것은 1961년부터다. (박은영, 「1950~60년대 상이군인의 이중적 입지와 일상 전략」, 『사학연구』 148호, 2022, 271~274; 278~283쪽.)

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변희근 소설이 폭격 와중에 공장을 지키다 얼굴이 무너져 버린 젊은 여성을 보여준다면, 김북향 소설과 류근순 소설은 아들·오라비·남편이 전사한 후 남은 가족의 생활을 비춘다.

김북향의 「행복한 사람들」은 '1952년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보고문학 격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공장에 조사차 파견된 작가 철민이다. 아직 전쟁 중인 만큼 공장은 대부분 시설을 지하로 옮긴 상황이지만, 그러한 비상 상황에도 시설은 어지간히 완비되어 오락실마저 갖추고 있다. “휘황한 전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하는 화려한 구락부는(…) 이곳이 바로 깊은 땅 밑이라는 감을 잊게” 할 정도다.³⁷⁾ 마치 평양의 모란봉극장이 지하에 재건됐듯, 지역의 공장 오락실도 지하에 성대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다.³⁸⁾ 소설은 철민이 바로 이 구락부에서 목격한 노동자 김탄실과 예전에 낙동강 전선에서 만났던 전사 박창선의 사연을 연결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 거기에는 김탄실의 흉터 진 얼굴에 얹힌 사연을 탐문하고 김탄실-박창선의 관계를 알아나가는 절차가 개재돼 있지만, 그것이 인상적인 반전이나 발전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처음 김탄실이 등장할 때 장내가 엄숙해지는 장면에서부터 “반편이 멍이 든 것처럼 푸르등등하게 억물은” 처녀의 얼굴이 숭고한 사연을 갖고 있으리라는 사실이 암시되며, 김탄실이 무대에 나와 “동무여! 이겨서 돌아오시라”라는 시를 낭송할 때 이미 서술자가 박창선이 그 시를 보여주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소설의 핵심은 이미 예감된 숭고의 서사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희근의 「행복한 사람들」은 이를 위해 낙오자 하나 없는 사회주의적 헌신과, 균열의 계기 없이 그것과 통합된 애정의 윤리를 보여준다. 탄실은 전로공(電爐工)이었던 연인이 전선으로 떠난 후 “창선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로를 애지중지”(81)하던 중, 공장이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전기로 스위치를 꺼서 폭발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다.

37) 변희근, 「행복한 사람들」, 『문학예술』 1953. 7, 75쪽.

38) 지하 모란봉극장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직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인상기도 여럿 남아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이화진, 「프랑스 지식인들과 전후 북한의 조우, 영화 <모란봉>(1960)」, 『사이/間/SAI』 3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3, 286~287쪽 참조.

나 어린 복순에게 임무를 맡겨 두긴 했지만 혹 복순이 공포나 당황에 저 버릴까 걱정된 까닭이다. 결국 탄실은 전기로를 구하지만 화염 속에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는다. 한편 ‘나’가 낙동강 전선에서 만난 창선은 소대의 도하 공격을 위해 강 건너 밧줄을 매는 위험한 임무를 자원해 수행한 전사다. 1950년 8월, 북한군이 한창 남진 중일 때다. 그는 ‘나’와의 대화 중에 돌발적으로 “시란 참 아름다운 거야!”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 그 말이 함축하는 대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시적 격동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시적 순간의 용법과 지속 가능성이다. 국가를 위한 몰아적 헌신이 개인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관철되는가? 시적 격동이 짧은 한때를 넘어 운동의 원리와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겠는가?

변희근의 「행복한 사람들」은 개인-국가 사이 연결과 격동-운동 사이 일관성을 옹호하면서, 탄실과 창선 사이 사랑을 그 사례로 삼는다. 얼굴 반쪽에 화상 흔적을 갖게 된 탄실은 창선을 피하려 하지만, 창선은 “문제는 조국을 사랑하는 동무의 그 아름답고 고결한 마음”이라며 “동무와 같은 훌륭한 처녀를 사랑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소”라는 다짐을 둔다(85). 문제는 채 제기되기도 전에 봉합된다. 탄실이 미더워하지 못한 어린 노동자 복실까지도 공장을 지키려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외모의 손상으로 인한 관계 왜곡의 가능성도 삽화적으로 스쳐 지나고 말 뿐 본격적인 갈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를 두고 소설가-관찰자인 ‘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짖는다. 부정적 갈등이나 균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념과 감정 간 조화와 공과 사 사이 일치를 살아가는 이들은 고결한 동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해방기 ‘고상한 리얼리즘’의 흔적인 듯 모두 존재의 고양을 경험하는 이 세계 속에서, 서술자 또한 “이 보람 있는 영웅적 우리 시대의 이러한 고결한 사람들을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느낀다(85).

한편 김복향이나 류근순의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복구 불가능한 상실과 그 대리보충의 과정이다. 김복향 소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남한 출신 병사가 전사한 상급자의 유족을 찾아 서로 상실을 보충하게 되는 사연을, 류근순 소설이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가 조국과 아들의 성장을 실감하며

행복을 찾게 되는 줄거리를 각각 보여준다. 고결하고 유능한 젊은 남성이 전쟁 중에 산화해 버린 후, 그 자리 자체가 대체되는 일은 드물지만,³⁹⁾ 보충(남편 대신 아들, 아들 대신 사위)은 허용된다. 김복향의 「행복」(『조선문학』 1958.2) 이 남한 출신 제대군인을 중심에 두고, 고향을 잃은 주인공과 오빠를 잃은 젊은 여성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류근순의 「행복」(『조선문학』 1960.6)은 “나두 장차 트락또르 운전수로나 될까 부다”라고 했던 남편의 뜻을 이어 여성 자신이 트랙터 운전수가 되는 성장을 초점화한다. 물론 후자의 젊은 여성 춘실에게는 유복자인 아들이 있으며, 춘실이 표명하는 ‘노동자로서의 행복’ (“춘실이는 황금 나락 더미가 산처럼 솟아오르는 전야 속으로 트락또르며 꿈바인이며 술한 기계들이 앞을 다투어 달아다니는 광경이 지레 눈앞으로 떠올라서 그 속의 일꾼으로 되어질 자기가 더욱 행복스럽기만 했다.”⁴⁰⁾)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의해 안받침된 것이다.

북한 소설의 ‘행복’은 비단 ‘행복’을 표제로 채용한 소설에서만 문제되지 않는다. 황건 · 변희근 · 김복향 · 류근순의 다른 소설들을 통해 알 수 있듯, ‘행복’은 북한에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신뢰하게끔 하는 궁극의 가치다. 그들에 따르면 사이비 행복 또는 불완전한 행복을 딛고 진정하고 완전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곧 사회주의의 도정이다. ‘행복’을 얼마나 강조하고 어떻게 조형하느냐는 작가마다 차이가 있지만⁴¹⁾ ‘행복’에 무관심한 작가는

39) 1950년대 남한 문학 · 문화에서 ‘미망인’ 형상이 부상했던 것처럼 북한 문학에서도 홀로 남은 젊은 아내는 중요한 문제를 구성한다. 재혼은 남북 모두에서 회피된 결말이지만, 북한에서는 특히 — 중요성 덜한 세부로는 임흥섭의 「복숭아나무」 등에 흔적을 남기고 있고, 회곡에서는 재혼 모티프의 집중적 취급도 눈에 띄지만 — 그 회피 정도가 엄격하다.

40) 류근순, 「행복」, 신형기 · 오성호 · 이선미 엮음, 『북한문학』, 문학과지성사, 2007, 702쪽.

41) 황건 소설은 수난 · 고통의 극복 서사 그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개마고원』은 기쁨과 보람의 장면을 보여주는 데 인색한 반면 극복 · 승리 · 성장의 서사를 중시한다. “...어떤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이예요? 우리는 아무런 곤란이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해방 후에 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전초 속에 혼자 앉았어도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오늘 저놈들의 감점 속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못해요”(황건, 『개마고원』, 369쪽). 반면 비슷한 시기 발표된 천세봉의 장편은 노동 · 휴식 속의 기쁨과 보람 및 행복의 감정을 즐겨 표현한다. 『석개울의 새봄』에서의 “아아 너희들의 시대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래로 흘러넘치겠니! 우리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마!” 같은 독백이라든가(제1부, 202쪽), 청년들이 “새 심장은 불타라! 내 심장은 불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예를 들어 변희근은 「빛나는 전망」은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이름 지어도 좋을 소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행복’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져야 하는지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신혼부부 혜숙과 윤호를 주인공으로 하여, “가정은 행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지경으로 깨가 쏟아졌”던 전쟁 전 그들의 생활이 불완전하고 기만적이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다. 전쟁 동안 홀로 남은 혜숙은 공장 근무를 통해 “노동에 대한 영예와 긍지”⁴²⁾를 느끼게 되는데, 긍정적 인물들이 한결같이 지지하는바 그것이야말로 채 깨닫지 못했던 참된 삶의 조건이다. 남편 윤호가 전선에서 돌아온 후 혜숙에게 이전과 똑같은 기쁨, 오직 아내이자 주부로서 살기를 요구하면서 소설의 갈등은 고조된다. 혜숙이 판단하기에 윤호가 요구하는 것은 “안일과 낙후와 무기력과 가치 없는 삶”, 반면 혜숙 자신이 바라는 것은 “노동의 영예와 전진과 진실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전자가 정지로 표상되는 반면 후자는 눈부신 변화로 표상된다. 「빛나는 전망」은 마침내 윤호가 승복하여, 용접 중인 아내의 모습을 “황홀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발견의 장면으로 끝난다(422).

1950~60년대 북한의 대표적 작가 중 한 명으로 후일 4·15 문학창작단 단장과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을 지낸 석윤키는 ‘행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작가다. 그는 변희근 류의 부부갈등이나 김복향 류의 세대갈등⁴³⁾ 대신 형제나 친구 사이의 논쟁과 계도라는 장치를 즐겨 활용한다. 그의 문학적 궤적을 통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처음 눈에 띄는 것은 「행복에 대한 생각」(『청년문학』 1962.8)이라는 수필에서다. 이 글은 30대 제대군인과의 대화를 전체적 틀로 하여 중간중간 작가의 생각과 감상을 삽입시키고 있는데, 제대군인이 작가를 찾아온 것은 화학 전공과 한문학 전공이라는 두 가지 길 사이

라! / 생활은 끝없이 즐거운 것 / 행복이 꽃피어 열매를 맺네”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제2부, 153쪽) 등이 그 사례다.

42) 변희근, 「빛나는 전망」,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음, 『북한문학』, 문학과지성사, 2007, 394쪽.

43)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김복향은 「아버지와 아들」, 「아들」 등을 통해 부자 사이 계승이나 단절·불일치에 자주 관심을 표현한다.

선택에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지만, 작가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춘 30대가 새로이 학업과 재교육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한다. 작가가 짓궂게 기왕 성공한 분야에서 자리 잡는 게 어때냐고 조언했을 때 제대군인은 노한 듯 “편안하게 지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게 아니라 사람을 반편을 만들어서 질러[지레] 죽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반발한다. 그는 “일광이 잘 드는 훌륭한 아파트가 차례졌고 아름답고 부지런한 안해가 있으며 튼튼하고 령리한 아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성장과 헌신에의 열망에 불타고 있다.⁴⁴⁾ 석윤기는 그런 모습에서 “크낙한 리상과 영웅주의와 발랄한 투지와 용솟음치는 정열”을 읽어낸다. “우리 시대에 청년이라 불리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청춘의 상징인 당이 있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백방으로 옹호하고 발양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만일 우리가 희망하고 노력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마침 신문을 통해 접한 남조선 청년들의 비참한 상황은 북한 체제에 대한 작가의 낙관적 신념을 더욱 고무시킨다. 작가는 그렇듯 현재 북한 체제하에서의 행복⁴⁵⁾을 상기시키는 한편으로 김일성 항일유격대 시절부터의 ‘행복’ 관념을 계승할 것을 역설한다. “그들은 후대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넘겨주기 위하여 피로와 허기, 온갖 간난신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초개처럼 여겼으니 그분들은 그것을 스스로의 행복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하되 무엇보다도 행복에 대한 그분들의 그렇듯 고상한 신념을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식민지시기 항일운동의 경험과 전후 복구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북한 사회에서의 체험이 같을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계승’의 형태를 모색하기라도 하는 양, 석윤기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쓴 이듬해 「행복」이라는 표제의 단편소설을 발표한다.⁴⁶⁾ 이 소설은 전쟁으로 아내와 딸

44) 석윤기, 「행복에 대한 생각」, 『청년문학』 1962. 8, 3쪽.

45) “화려한 도시와 마을, 창문마다 화분이 아름답고 카텐이 하느적거리는 방, 활짝 열려진 배움의 길과 새 기술로 정비된 일터, 춤과 노래, 연구실과 휴양소 등등!”(4).

46) 이즈음 ‘행복’이라는 주제는 석윤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듯, 같은 해 「축복」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기

을 잃은 후 의사로 복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형진을 중심에 두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직설적으로 묻는다. 그 질문의 계기를 만든 것은 형진의 ‘송아지동무’로서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서술자 ‘나’이다. ‘나’는 오랜만에 평양에 들른 형진을 환대하던 차 “자네 개인의 행복”을 돌보라며 재혼을 권유하는데, 이 평범한 권유는 뜻밖에 형진의 이의에 부딪힌다. 형진이 “여보게 철이, 자네는 행복한가?”라고 반문한 후, 두서없이 행복의 양태를 나열하는 ‘나’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다. ‘나’는 좋은 직장과 성공적 사업 성과, 다정한 아내와 영리하고 튼튼한 2녀 1남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건 한마디로 속물적인 견해야. 아름다운 아내… 물론 좋지.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청춘과 함께 조만간 빛이 날고 말 게 아닌가? 그럼 파파 늙은 노친네를 데리고 자네는 어디서 행복을 찾겠나? 당과 혁명의 위업에 복무하는 것, 자기 사업에 대한 자부심, 귀여운 자식, 유족한 생활— 자네는 술한 요인들을 끌어 대네마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겠나? 옛 사람들은 오복이 구전(五福俱全)이라는 말을 했었지. 그래 자네는 몇 복이나 있었으면 하나? 혹 자네가 여자였다면 그 속에다 치마가 몇 벌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에 넣지 않았겠나?”⁴⁷⁾

계속 이어지는 논쟁적 대화는 전적으로 형진에 의해 주도된다. 처음부터 ‘행복’에 대한 계몽을 목표하기라도 한 듯, 형진은 “그따위 욕망의 충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것일세.”라고 일단락한 후 자기 경험을 들려주는 단계로 이동한다. 그것은 사적 욕망의 절제와 공적 대의에의 헌신이 지배적이되 어떤 부정적 억압도 없는 세계, 절제와 헌신이 거의 시적인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서의 일화다. 서사의 줄기는 형진이 새 부임지에서 죽은 아내를 꼭 닮은 옥주라는 준의를 만났고 그에게 매혹됐으나, 옥주는 이미 영예 군인 승재와 약혼한 처지로서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형진은 승재의 하반신마비

도 한다. 이 소설은 전쟁고아였던 김돌이의 훌륭한 성장을 통해 사회주의적 헌신과 희생 위에서 “김일성 장군님의 아들”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명제를 설득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47) 석윤기, 「행복」, 『조선문학』 1963.4, 7쪽.

를 치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다는 것이지만, 「행복」의 개성은 극적 서사를 줄기로 하면서도 감정의 멜로드라마적 분출을 완전히 또 성공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옥주에 대한 형진의 관심은 독자들에게조차 직접 발설되지 않으며, 옥주와 승재 사이의 완전한 행복 또한 시각화·장면화 위주로 전달된다.⁴⁸⁾ 내화(內話)의 절제·침묵을 보충하는 듯 외화에서 형진이 자못 권위적인 계몽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는 하다. 형진은 연설과도 같은 문장으로 자기 경험담을 마무리한다: “행복이란 인민들의 부단한 전진 운동과 투쟁 대오 속에서 그 속에 완전히 융합된 자기의 발걸음을 감촉하는 것이네. 천리마의 대진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혁명 대오의 흐름 속에 이끌며 이끌리며 발을 맞춰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을 하나로 융합시킨 우리 당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최대의 행복이지”(8).

석윤기의 「행복」은 북한 문학의 정전 중 하나로서, 오늘날에는 ‘천리마시대’에 대한 자부심 어린 회고와 함께 재독되고 있다. “「행복」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지닌 집단주의적 인생관, 주체의 행복관에 대한 문제를 기본주제로 제기하고 훌륭히 풀어나간” 소설이라는 것이 전형적 평가다.⁴⁹⁾ 석윤기는 1962~63년 「행복에 대한 생각」 「행복」 「축복」을 잇따라 발표한 후에도 ‘행복’에 대한 사색을 거두지 않는다. 해방기부터 전쟁기까지를 배경으로 한 장편 『시대의 탄생』에서도 ‘행복’은 인간 된 자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시대의 탄생』에서 아직 청년의 연배인 장교 전학민은 그보다 몇 해 아래인 박세철을 두고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내 보건대 동무도 좀 취해 있는 것 같소. 행복에 말이요….”⁵⁰⁾ 세철은 김일성 항일유격대 활동 중 죽은 형을 두고 있

48) 논쟁적 대화 자체를 핵심으로 하는 소설답게, 이 장면을 엮은 형진의 감상과 분석이 길게 이어지기는 한다. 형진은 옥주의 선택이 자기희생 또는 도덕적 의무감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리면에는 반드시 그 어떤 그들이 비껴 있으리라는 것(…) 그것이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할 것인가”를 예감하던 중, 둘 사이 행복이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을 받는다(21). 발설되지 않지만 이 장면은 옥주에 대한 형진의 연정이 자발적으로 완전히 포기되는 순간을 표현한다.

49) 김기철,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행복관에 대한 철학적인 대사 형상: 석윤기의 단편소설 「행복」을 읽고」, 『문화어학습』 2006, 1.

50) 석윤기, 『시대의 탄생』 1,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72쪽.

지만, 식민지시기에는 소년에 불과했던 만큼 그 고난의 역사를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신생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보장하는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⁵¹⁾ 즉 세철의 충성심이나 행복감이란 시련을 겪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적 행복’으로 거듭나려면 고난과 단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마치 몇 년 후 김복향이 「아들」(1971)에서 트럭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눈보라 뚫고 걸어가는 부자를 모범적 인물로 제시했듯 말이다. 「행복」의 형진은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 쓰러질 때까지 수혈을 거듭하며, 그의 은밀한 연적 격이었던 승재는 하반신마비에서 회복된 후 가장 험난한 막장을 향한다. “행복을 향하여 공산주의를 향하여”(27).

5. ‘사회주의적 행복’, 그 후 70년

1950년대 북한 소설의 ‘행복’은 정당한 미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복(황건 「행복」), 또한 그 희생이 존중되고 보상받는 사회 속에서의 행복(변희근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곧 소련의 대표적 정전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류로써 전파된 혁명기의 행복이자, 글라드코브의 『시멘트』나 셰라피모비치의 『철의 흐름』류로써 확산된바 건설기 사회주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소련의 경우 제1차 대전-혁명-내전의 과정을 겪으며 형성·전파됐던 전자가 제2차 대전의 경험에 자극돼 같은 계열의 다른 레퍼토리로 이어지는 한편, 신경제 정책(N.E.P.)를 이어 1928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속 추진하는 데 대한 호응이자 선동으로서 ‘스타하노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문학적 형상화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후 북한은 소련이 경험한 두 층위의 시간을 압축해 수용하면서 새로운 인간형을 주조해 낼 것을 시도한다. 그 위에 한국전쟁

51) 식민지시기의 ‘행복’ 개념에 대해서는 최병구, 「1920년대 초 ‘사회주의’의 등장과 ‘행복’ 담론의 변화」, 『한국학』 34호, 2011 참조.

에서 일종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주장함으로써, 즉 전쟁을 “청소하구 무장 두 완비되지 않았던 우리 인민군대가 소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 정예 군대를 섬멸하구 끝내 승리”한 “수수께끼”의 서사로 다시 씌으로써,⁵²⁾ 북한은 특유의 ‘사람 중심’·‘주체 중심’으로 나갈 기초를 마련한다. 한국전쟁기의 경험은 “일찍이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은 인민이 있었으며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찬란한 꿈을 가졌던 인민이 있었던가?”⁵³⁾이라는 경탄으로 회상되고, 그에 상응하여 “의학은 인간의 정신력 자체보다 강렬할 수는 없었네(…) 그러한 인간들을 죽음에 내맡길 권리가 의사들에게는 없는 것이었네.”라는 식으로 현실적·물질적 조건을 초월하는 의지의 힘이 강조된다.⁵⁴⁾

다시 1950년대 소련의 영향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면, 빠블렌코의 『행복』이나 할렘스키의 『행복』에 표현된 윤리는 ‘행복’을 주제로 한 철학적·사상적 논저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조쏘친선』 1954.3)이나 뱌스토히도브(Н. Лавренов В. Постовойтов)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우리 시대 영웅들에 대하여』에서 발췌 번역, 『조쏘문화』 1959.1) 등이 대표적이다. 톨스토이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는 제2차 대전 중인 1939년에 작성된 글로서, ‘평화롭고 유족한 노년’의 초상을 제시한 후 “아마 언젠가 이런 사람이 살았을 것이며 그를 행복하다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⁵⁵⁾고 선언한 글이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조용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만, 이때 행복은 “개체주의적인 황홀 상태”를 가리키는 자본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사회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힘의 완전성을 감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인 도덕 원칙은 ‘행복’처럼 자칫 개인주의적 목표로 비칠 가치를 사유·실천하는 데 있어 유력하고 유효해야 한다.

뱌스토히도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한 ‘투쟁’으로서의 ‘행복’을 부

52) 김복향, 「아버지와 아들」, 김종희 편, 『력사의 자취』, 국학자료원, 2012.

53) 석윤기, 『전사들』, 문예출판사, 1986, 272쪽.

54) 석윤기, 『행복』, 17쪽.

55) 알렉세이 톨스토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조쏘친선』 1954.3, 69~70쪽.

각시킨다. 이 글은 “아버지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쟁이다.” 라는 맑스 부녀의 대화를 첫머리에 내세운 후, 혁명 투사들의 일화 3~4종을 배치하고, 이어 오스뜨롭스끼 장편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와 표도로브 중편 「지원자들」 속 주인공들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당시 소련 지도자였던 흐루쇼브의 생산성 촉구에 대한 연설도 삽입한다. 그 줄기는 할렘스끼의 「행복」에서 제시됐듯 제1세대의 혁명·투쟁 속에서의 행복과 제2세대의 생산·발전 속에서의 행복이다. “투쟁 속에서 행복을, 속된 향락보다 수십 배나 고귀한 행복을 발견”(58)한 사람들, “오직 인민에게 복무하고자 하는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일관된 생활”(58)로 시종한 사람들—그런 생애의 정점에 율리우스 푸치크나 오스뜨롭스끼(그리고 그의 주인공 폴차긴)가 있다. 푸치크의 『교형수의 수기』나 오스뜨롭스끼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초기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로 탐구해야 할 주제겠지만, 1950년대에 번역됐던 이들 ‘행복’의 개념이 70년 후인 지금까지도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⁵⁶⁾ 그것이 선전 또는 세뇌의 효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앞선 연구에서 반복해 지적됐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의 동원을 자발적 호응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서사화하고 ‘미국과 싸워 이긴 경험’에서 사회의 제반 가치를 구축해 온 북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상실과 손상을 정당화하는 ‘행복’, 투쟁 속의 ‘행복’이 행복 개념과 감정의 주선율을 구성했으며, 그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대중적 수용 구조와 상호 불가결하게 뒤얽혀 있다.

56) ‘북한 문학과 행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한 고찰(Marina Balina & Evgeny Dobrenko ed., *Petrified Utopia: Happiness Soviet Style*, Anthem Press, 2011 등)이 필수적일 텐데, 그 독특한 감성 구조와 시간성에 대한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뤄둔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학예술』 『문화어학습』 『조선문학』 『조소친선』 『조소문화』 『청년문학』

빼 빼블렌고, 백석 옮김, 『행복』, 국립출판사, 1953.

2. 참고논문 및 저서

강만길, 「소련군의 북한해방과 점령정책」, 『한국사강의』 1, 한길사, 199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연구자료집』 1,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연구, 역락, 2020.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호, 2016.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자서전과 이력서로 본 북한의 해방과 혁명, 1945~1950』, 푸른역사, 2020.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호, 2010.

박은영, 「1950~60년대 상이군인의 이중적 입지와 일상 전략」, 『사학연구』 148호, 2022.

백남운, 방기중 해제, 『소련인상』, 선인, 2005.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음, 『북한문학』, 문학과지성사, 2007.

이임하, 「적을 빨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철수화영회, 2012.

이태준, 『소련기행』, 상허학회 편, 『이태준전집 6: 소련기행·중국기행 외』, 소명출판, 2015.

이화진, 「프랑스 지식인들과 전후 북한의 조우, 영화 <모란봉>(1960)」, 『사이/間/SAI』 3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3.

임유경,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 해방기 북조선의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66호, 2009.

_____,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호, 2016.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호, 2008.

전갑생·김용진·최용원,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빨라심리전』, 도서출판 뉴스타파, 2024.

정대화·장영, 「1930년대초 중국 지식계의 '소련열풍」, 『중국사연구』 58호, 2009.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3: 1945~1959』, 문학과지성사, 2016.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편, 『(러시아 국립도서관) 북한자료 종합목록: 러시아국립도서관(RSL)·러시아 국립도서관(NLR)·외국문학도서관(LFL) 소장』, 2024.

최병구, 「1920년대 초 '사회주의'의 등장과 '행복' 담론의 변화」, 『한국학』 34호, 201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빨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한상언, 「조소문화 및 조소친선 목차 소개」, 『근대서지』 19호, 2019.

Balina, Marina & Dobrenko, Evgeny ed., Petrified Utopia: Happiness Soviet Style, Anthem Press, 2011.

Kim, Suzy, 윤철기·안중철 옮김, 『혁명과 일상: 해방 후 북조선, 1945~50년』, 후마니타스, 2023.

The Korean War and Representations of “Happiness” in 1950s North Korean Literature

Kwon, Boduerae*

“Happiness” is one of the core values that constitute the ideological and moral found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This paper traces the origins of the peculiar notion of happiness, which can be attributed back to the 1950s. I examined the process through which “happiness in the struggle for socialist construction” and “happiness after socialist construction” came into conflict and coexistence, ultimately leading to the predominance of the former. Specifically, first I compared propaganda leaflets from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o analyze how the concept and emotions of “happiness” were utilized in psychological and propaganda warfare. I then investigated the (re)semanticization of “happiness” in North Korean literature of the 1950s, focusing on the novels that explicitly feature happiness in their titles—those of Hwang Geon, Byeon Hui-geun, Kim Buk-hyang as well as Soviet literary translations that emphasize happiness, such as Pavel Pavlenko’s *Happiness* and Harlemzky’s “Happines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eals that Soviet novels and film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World War II served as crucial reference points for ideologically compensating for and narratively signifying the losses and sacrifices caused by the Korean War. I argue that a historical consciousness equating “World War II $\doteq$ the Korean War” was constructed as part of socialist internationalism. I also explored cases in which the tension between “happiness in the struggl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and “happiness after socialist construction” was narrated through generational conflicts between father and son or between brothers, as well as cases in which the conflict between “public happiness” and “private happiness” was framed through gender conflicts within young married couples. By highlighting the interpretive tensions surrounding happiness in 1950s North Korea, this study ultimately seeks to demonstrate, through an analysis of Seok Yun-gi’s novels, that although a new synthetic concept of happiness emerged in the early to mid-1960s, it was not sustained amid the subsequent systemic crisis.

Key words : Happiness, P.Pablenko, Hwang Geon, Byeon Hui-geun, Kim Buk-hyang, Seok Yun-gi, propaganda, psychological warfare, Korean War, *Chosso-Munhwa*, socialist happiness, World War II